

◆ KOEMA 消息 ◆

電機工業發展 民間協議會 開催

電機工業 전반에 걸친 민간자율의 범 업계적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전기공업 발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한 電機工業發展 民間協議會(委員長 : 李喜鍾)가 지난 12월 14일 무역 클럽에서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 위원과 정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96 전기공업 시책 방향 협의와 "21세기를 향한 중전기산업의 발전 전략" 연구결과 보고, "중전기기 개발시험설비 건설 추진 현황",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대일 중전기기 수출촉진단 파견 결과"와, "96 서울 국제종합 전기기기전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있었다.

한편,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는 지난 '86년부터 민간자율의 협의체로 산업정책에 관한 민간부문의 각종 산업,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산업정책 결정에 관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공업국별로 구성 운영된 협의체 기능에 따라 5기에 걸쳐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동·서남아 電機工業 수출촉진단 파견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고도 경제성장과 급속한 공업화 진전에 따라 대규모 전기설비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주가 크게 예상되고 있는 동·서남아 지역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수출촉진단을 파견한다.

韓國電力公社 후원하에 파견되는 이번 동·서남아 전기공업 수출촉진단은 진흥회 任寅柱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주요 중전업체 임·직원과 한전 관계자 등 총 17명으로 구성, 오는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 까지 11일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장 개척 및 수출 상담 활동을 벌이게 된다.

수출촉진단은 현지 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환경을 조사하는 외에도 각국의 전기관련 기관 및 단체를 방문, 국가별 전원개발 계획 및 중장기 전력기자재 수요를 파악하며 특히, 인도 전기전자공업협회와는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 앞으로 양국간 전기공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와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수출촉진단에는 LG 산전, 대성전선, 수산중공업, 계양전기, 일진전기공업, 태진전기, 건화상사, 태형, 태광 등 국내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참가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의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공업」PC 통신 서비스 개시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전기업계와 전기공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 PC 통신 “KIS”를 통하여 「KOEMA」정보망을 개설·운영한다.

「KOEMA」정보망에서는 진흥회 조직과 기능, 회원현황 등 진흥회 일반현황 소개 및 전기공업과 관련한 국내외 전기공업 동향, 중전기기 업계의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동향, 정부시책, 통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NEWS LETTER 전기공업”, “전기공업”, “전기공업 통계”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업계에 제공하던 해외 전기공업 동향과 기술·품질관리 동향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발췌 입력하여 PC 통신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보급 기능 강화와 신속·다양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진흥회에서는 이번 정보제공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폭넓고 깊이있는 국내의 정보를 수집 전파함으로써 회원사 및 전기업계의 세계화, 정보화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